

## Hanwha Global Macro

### 원화 약세 미스터리



▶ 경제 최규호 | [choi.gh@hanwha.com](mailto:choi.gh@hanwha.com) | 3772-7720

“

우리나라 펀더멘탈 개선에도 원화가 약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은 데다,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장 및 금리 격차와 대외금융자산 흐름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하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 | Contents |

---

I. 핵심요약.....	03
II.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 .....	04
1. 우리 집이 잘 살아도.....	04
2. 옆집(미국)이 더 잘 살면, 원화는 약세 .....	07
3. 일본, 독일, 영국의 사례 .....	09
III. 늘어나는 돈거래, 커지는 영향력 .....	13
IV. 원/달러 환율 하단은 1,250원 .....	16
V. 금융 데이터 차트북 .....	17

## I. 핵심요약

원화 약세 미스터리  
해답은 저성장과 저금리

원화 가치가 미스터리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지만 원화는 오히려 약세 압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글로벌 교역 개선은 원화 강세로 이어졌는데, 이것만으로 원화 가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약하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미국 대비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으면,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다시 흘러나가게 된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회복돼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도 약하고 금리도 낮은 상황이 6개월 넘게 지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독일, 영국의 통화가치도 우리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과 금리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야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

또 다른 원인은  
활발해진 자본 이동

펀더멘털의 환율 설명력이 낮아진 또 다른 요인은 돈의 거래(금융계정)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 같다. 2000년대 이후 상품교역 규모는 4~5배 가량 늘었지만, 해외투자(=금융계정의 자산)는 주식을 중심으로 최대 20배 증가했다. 금융계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외환시장 규제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해당 요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진 않다.

원/달러 환율 하단  
1,250원 전망

결국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려면, 미국보다 성장이 강해지거나 금리가 높아져야 한다. 단기간 내 한-미 금리 역전(200bp)이 정상화되기는 어렵고, 성장 격차 역전은 이르면 연말 정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내년 초에 발표되기 때문에 연내 원화 강세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봐도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와 펀더멘털의 괴리가 커진 이후 달러화 강세 영향을 제외한 원화 약세의 환율 상승 기여도는 +6.2%p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되돌려진다고 하면 그 수준이 1,250원 정도이다. 앞으로 달러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도 이를 반영해 하락하겠지만, 달러인덱스가 100 내외에서 머물 경우 원/달러 환율 하단은 1,25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II.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

### 1. 우리 집이 잘 살아도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개선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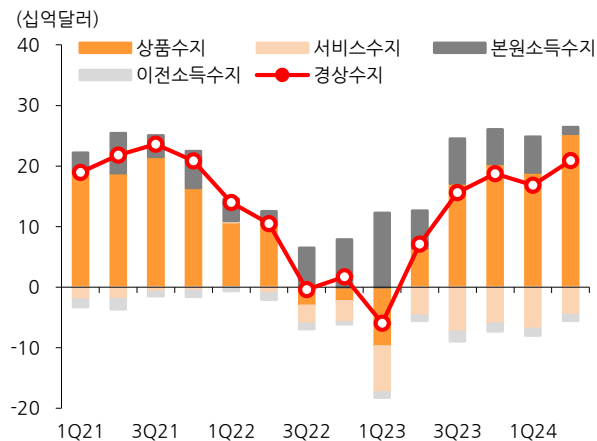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양호하다. 경상수지는 작년 2/4분기부터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반기 경상수지(377억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11.5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그림1]. 이와 더불어 국제 해양 물동량 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실질경제활동지수도 2023년 2월을 저점으로 반등 중이다. 작년 10월 이후 대체로 플러스(+) 값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양호한 글로벌 교역 환경을 반영한다[그림2].

펀더멘탈이 양호하면 일반적으로 통화가치는 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무역 실적과 교역 환경을 펀더멘탈로 볼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글로벌 교역 개선은 원화 강세 요인이다.

원화는 오히려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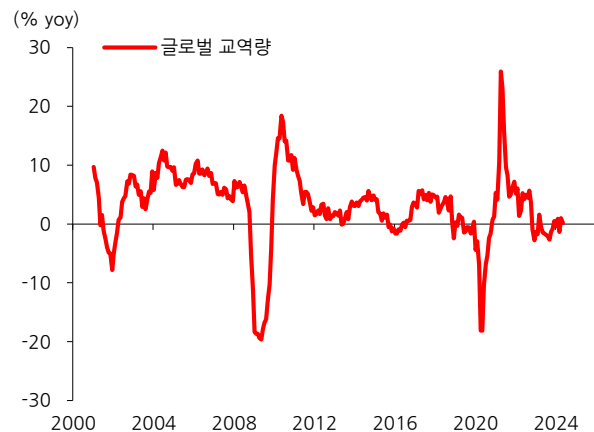
그러나 펀더멘탈 개선에도 원화는 오히려 약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그림3,4]. 펀더멘탈만으로 원화 가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결국 국내 성장과 통화 간 연결고리가 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펀더멘탈 이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핵심은 성장과 금리의 상대적인 격차와 자본 거래의 증가라고 생각한다.

[그림1] 수출 회복과 더불어 경상수지 개선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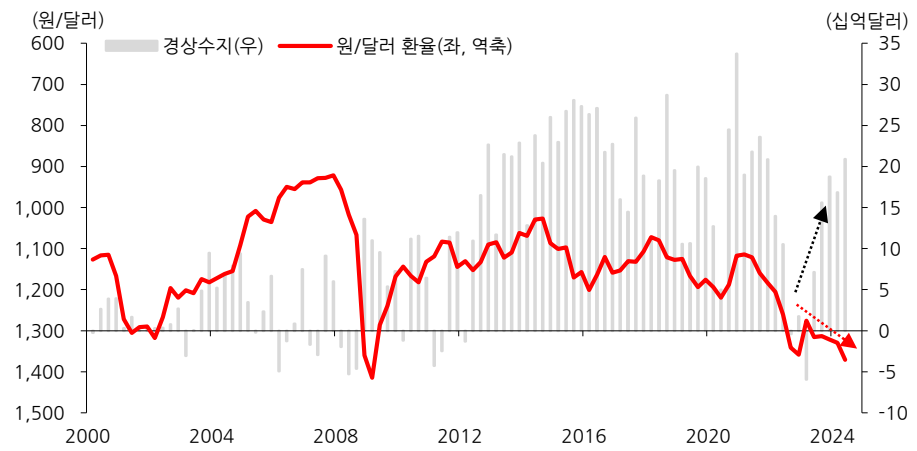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글로벌 교역량도 완만하게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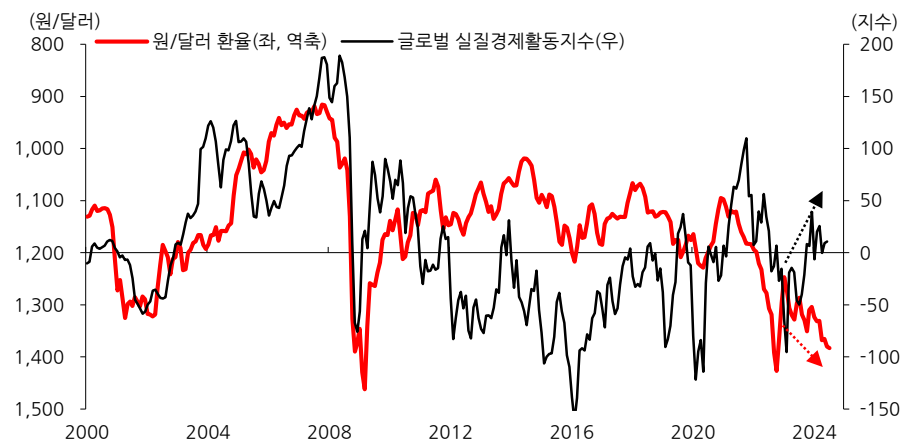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최근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는 약세 압력이 강해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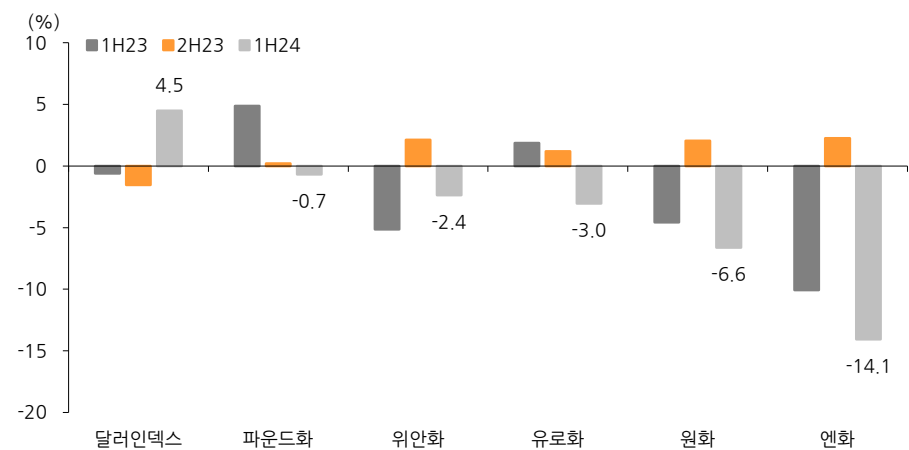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에도 원화는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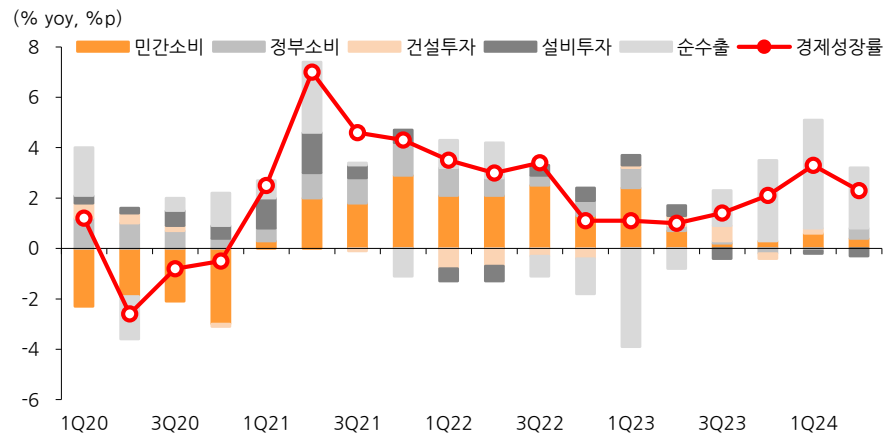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RB of Dalla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펀더멘탈 영향력 약화로 원화 약세 압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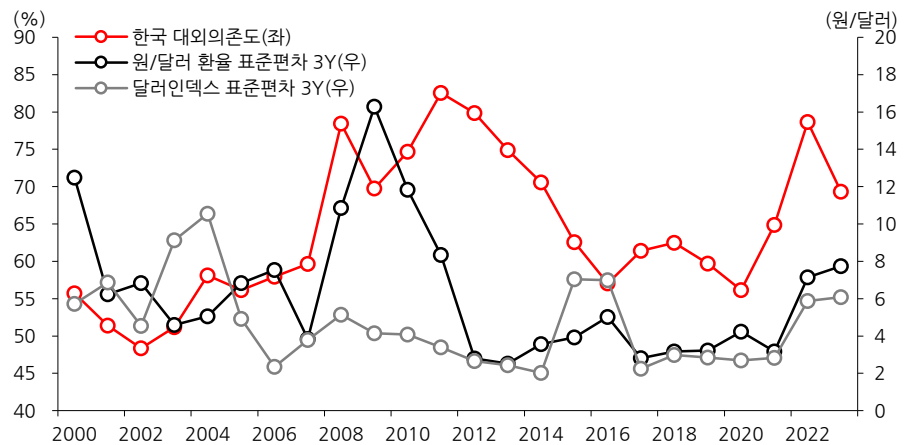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성장률 둔화 이후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면서 대외의존도 확대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 원/달러 변동성도 커지는 경향



주: 표준편차는 분기평균 환율을 지수화시킨 이후 과거 3년의 표준편차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 옆집(미국)이 더 잘 살면, 원화는 약세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성장 약하고 금리 낮아  
원화가 강해지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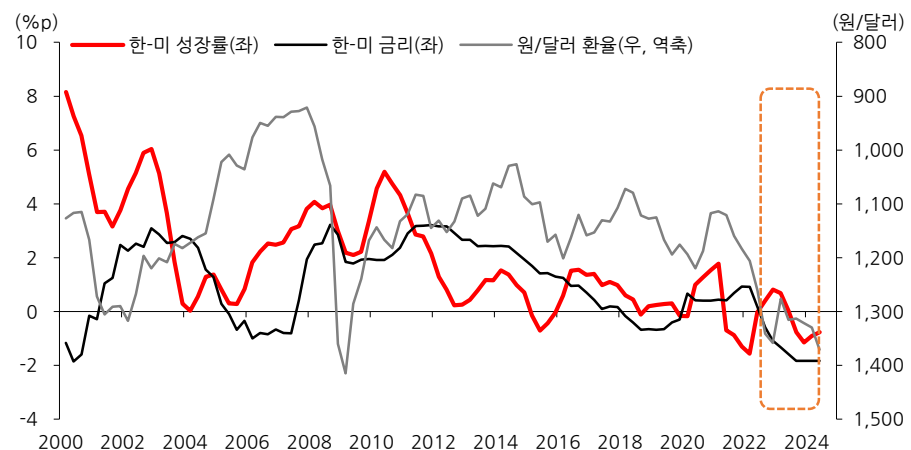
펀더멘털 회복에도 원화가 약한 이유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약하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낮다 (성장률과 기준금리 격차 각각  $-0.8\%p$ ,  $-2.0\%p$ ). 2000년대 들어 6개월 넘게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도 약하고 금리도 낮았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림9].

이처럼 미국 대비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절대적으로 회복돼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가 어렵다[표1].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상당부분이 성장이 양호하고 금리도 높은 미국으로 다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는 상품의 질이 개선됐어도 다른 가게의 상품이 더 매력있다면, 사람들은 그 가게를 찾을 것이다.

미국 대비 성장이 강하거나  
금리가 높아야 원화 강세

과거 사례를 봐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 시기에는 ① 미국보다 성장이 강하거나 ② 금리가 높았다. 2005~07년에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았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그림11]. 2013~15년에는 양국 성장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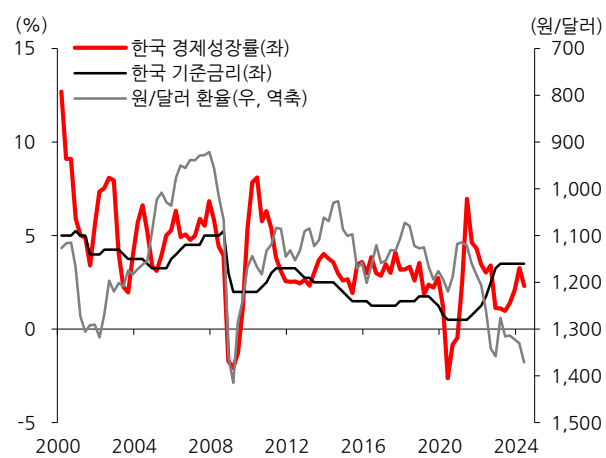
[그림8] 미국보다 성장이 약하고 금리도 낮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 처음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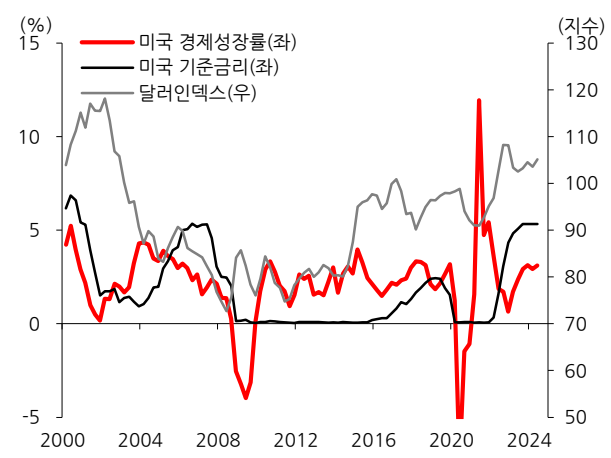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RB,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한국의 성장, 금리, 통화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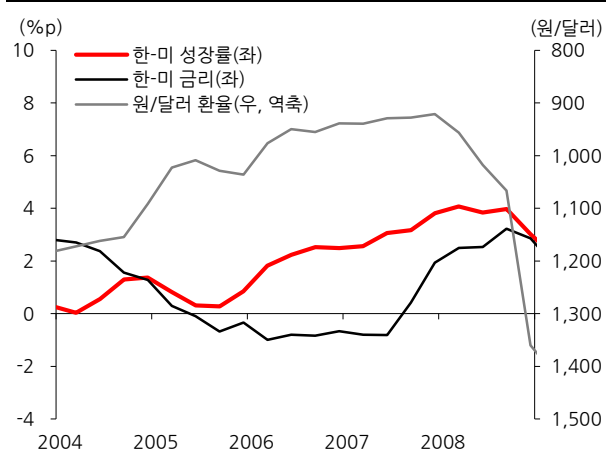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의 성장, 금리, 통화가치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RB,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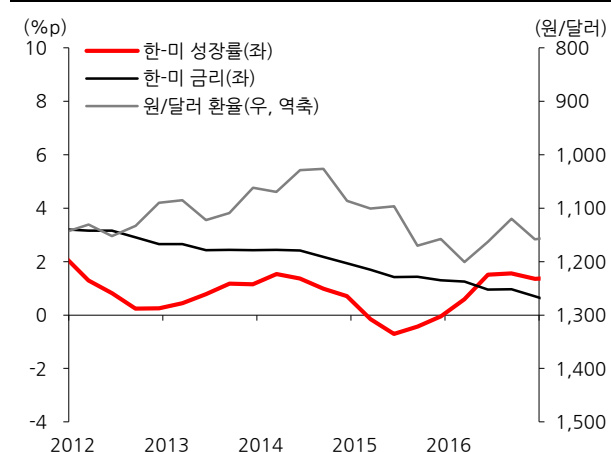
[그림11] 2005~07년: 성장이 상대적으로 양호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FRB,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2013~15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음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FRB,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주요 시기 한국과 미국의 성장, 금리, 환율 흐름

	2005~07년			2013~15년			2023년 이후		
	한국	미국	차이	한국	미국	차이	한국	미국	차이
성장(%)	5~6	2~3	△	2~4	2~4	-	1~3	2~3	▽
금리(%)	3~4.5	4~5.5	▽	1.5~2.5	0~0.5	△	3.5	5~5.5	▽
통화가치	강세	약세		보합	강세		약세	보합	

주1: 성장과 금리는 대략적인 범위 표시. △ = 한 &gt; 미, ▽ = 한 &lt; 미, (-) = 한 ≒ 미

주2: 한국은 환율 하락(상승)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미국은 달러인덱스 상승(하락)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자료: 한국은행, FRB,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3. 일본, 독일, 영국의 사례

다른 주요국 통화가치도  
비슷한 흐름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을 때 자국 통화 강세가 제한되는 건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 비중이 크고 대외의존도가 어느정도 높은 일본, 독일, 영국 사례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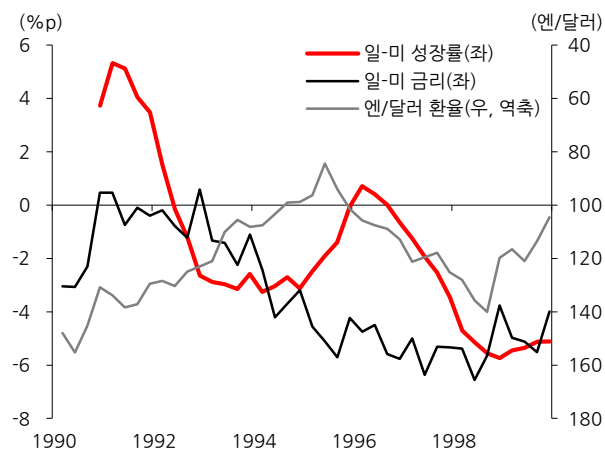
일본: 상대적 고성장, 고금리  
구간에서 엔화 강세

일본도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서는 엔화가 쉽게 강세로 가지 못했다. 1990년대 일본은 2010년대 한국과 유사하게 성장이 약했고 금리가 낮았다. 1995~96년 경기가 반등하기도 했으나 자산시장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때 이후로 엔/달러 환율은 오랜 기간 100엔을 하회하지 못했다[그림13].

반면, 상대적으로 성장이 양호하고 금리 차가 줄어들 때는 엔화 강세 압력이 높아졌다. 침체 국면 이후 처음으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하회한 시기는 2008년 말이다. 200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 대비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았다. 그러나 엔화가 가장 강했을 때만큼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고 금리 차이도 거의 없었다[그림14].

일본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성장과 금리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미국보다 강해야 자국 통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월초 급격한 엔화 강세의 기저에도 미-일 금리 격차 축소 전망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성장보다 금리 차이가 변수일 것으로 보여 엔화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통화정책 격차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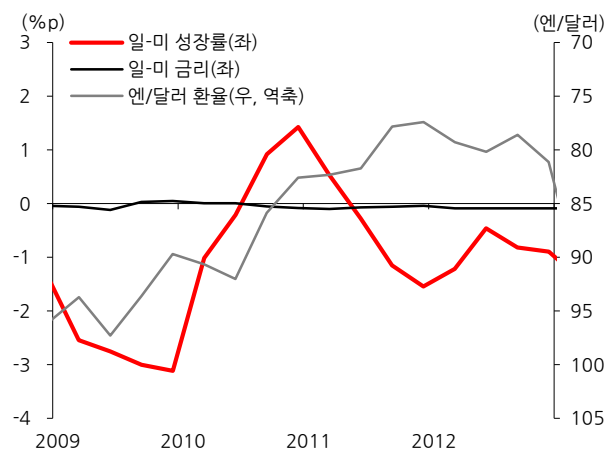
[그림13] 1995년 이후: 저성장과 저금리가 엔화 약세를 야기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ESRI, Bank of Japan,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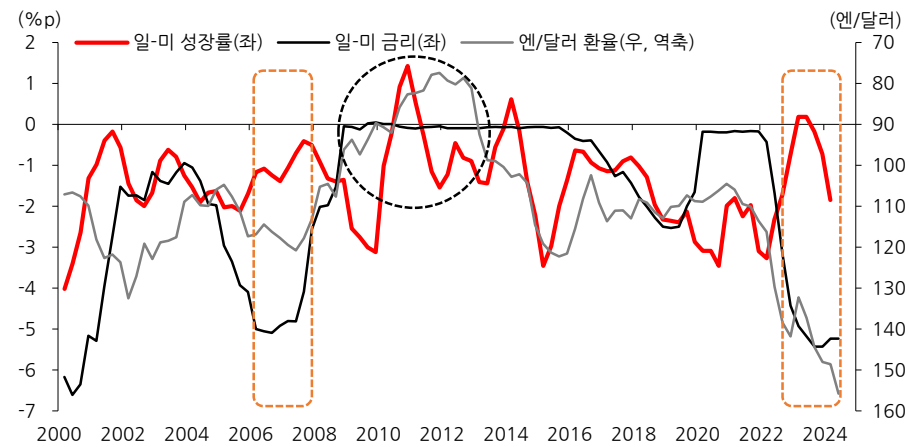
[그림14] 2010~11년: 성장이 강했을 때 엔화가 가장 강세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ESRI, Bank of Japan,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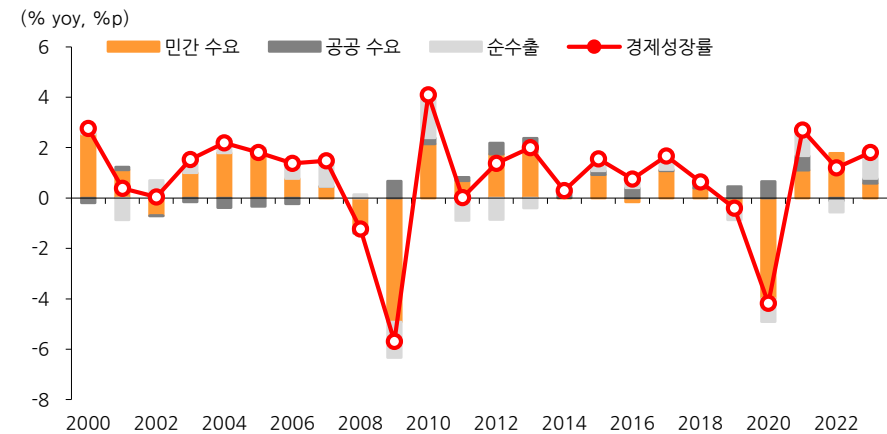
[그림15] 2023년 이후: 약한 성장과 더 낮은 금리가 이끈 엔화 약세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Bank of Japan,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



자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주요 시기 일본과 미국의 성장, 금리, 환율 흐름

	2010~11년			2012~14년			2023년 이후		
	일본	미국	차이	일본	미국	차이	일본	미국	차이
성장(%)	-1~5	1~3	△	-1~3	1.5~3	▽	-1~2.5	2~3	▽
금리(%)	0~0.1	0.25	▽	-0.1	0.25	▽	-0.1~0.1	5~5.5	▽
통화가치	강세	보합		약세	강세		약세	보합	

주1: 성장과 금리는 대략적인 범위 표시. △ = 일 &gt; 미, ▽ = 일 &lt; 미, (-) = 일 ≒ 미

주2: 일본은 환율 하락(상승)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미국은 달러인덱스 상승(하락)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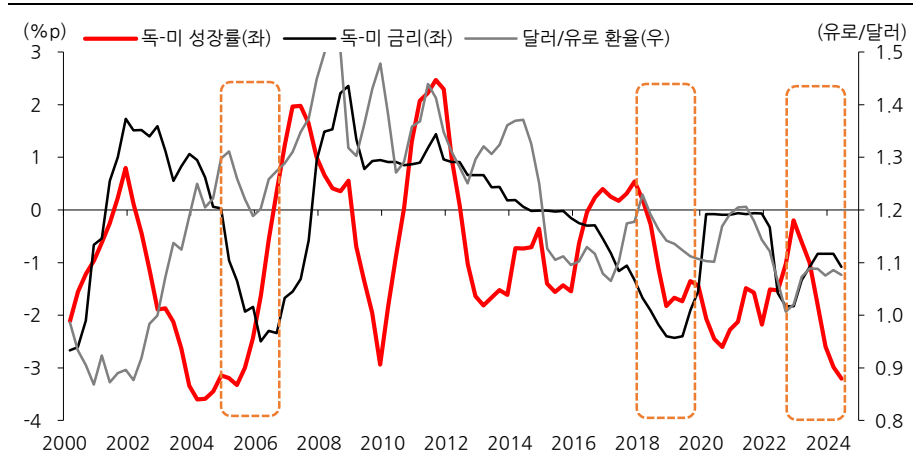
자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Bank of Japan,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독일: 경기 부진, 금리 역전  
당시 유로화도 약세

유로화도 유로존 경기 부진과 낮은 금리가 겹쳐질 때는 약했다. 독일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도 미국보다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은 상황이 두 차례 더 있었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약했던 2005~06년에는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금리에 이어 성장률도 역전됐던 2018~19에도 유로화는 약세 전환했다[그림17].

2022년 이후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 시기의 공통점은 유로화가 강세로 가진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이나 2016년 이후 유로화 강세 시기에는 미국 대비 성장이 양호했거나, 금리가 높았다. 유로화 움직임도 원화와 기본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림17]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서 강세가 제한되는 것은 유로화도 마찬가지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European Central Bank,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주요 시기 독일과 미국의 성장, 금리, 환율 흐름

	2002~04년			2016~18년			2022년 이후		
	독일	미국	차이	독일	미국	차이	독일	미국	차이
성장(%)	-1~1.5	1~4	▽	2~4	2~3	△	-0.3~2	2~3	▽
금리(%)	2~3	1~2	△	0	0.5~2.5	▽	3.5~4.5	0.5~5.5	▽
통화가치	강세	약세		강세	보합		약세	강세	

주1: 성장과 금리는 대략적인 범위 표시. △ = 독 > 미, ▽ = 독 < 미, (-) = 독 ≈ 미

주2: 독일은 환율 상승(하락)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미국은 달러인덱스 상승(하락)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European Central Bank,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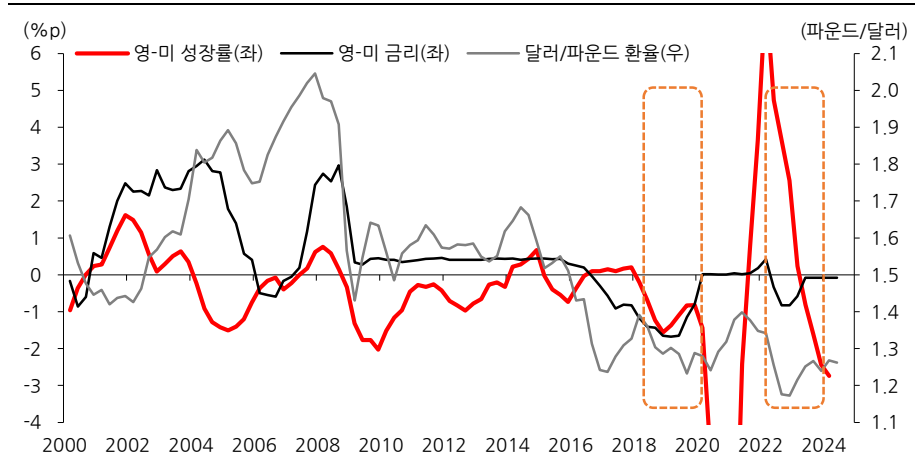
영국 파운드화도  
예외는 아님

영국 파운드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18~19년에 영국 성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금리가 역전됐을 때, 파운드화는 약세 전환됐다. 다만, 파운드화는 성장보다 금리 차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그림18].

영-미 금리 역전 해소 시  
파운드화 강세 전망

이를 토대로 하면 파운드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다른 주요국과는 달리 미국과 금리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영란은행보다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영-미 금리 역전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다. 영국 금리가 높아지면 파운드화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8] 파운드도 영국의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으면 약세 전환



주: 성장률은 4개 분기 이동평균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ank of England,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주요 시기 영국과 미국의 성장, 금리, 환율 흐름

	2002~04년			2016~18년			2022년 이후		
	영국	미국	차이	영국	미국	차이	영국	미국	차이
성장(%)	2~3.5	1~4	-	1~3	2~3	-	0~4	2~3	▽
금리(%)	3.5~4	1~2	△	1.5~2.5	0.5~2.5	▽	1~5	0.5~5.5	▽
통화가치	강세	약세		약세	보합		약세	강세	

주1: 성장과 금리는 대략적인 범위 표시. △ = 영 > 미, ▽ = 영 < 미, (-) = 영 ≈ 미

주2: 영국은 환율 상승(하락)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미국은 달러인덱스 상승(하락) 추세일 경우 통화가치 강세(약세)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ank of England,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Ⅲ. 늘어나는 돈거래, 커지는 영향력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돈거래) 급증

경상수지, 글로벌 교역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펀더멘털의 환율 설명력이 낮아진 또 다른 요인은 돈의 거래(금융계정)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으로 구성된 경상수지가 외국과 실물을 거래한 결과라면, 증권투자자 직접투자 등을 포함하는 금융계정은 돈의 거래를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상품교역 규모는 약 4~5배 가량 늘어났지만, 금융계정 내 자산(=해외투자)은 주식을 중심으로 최대 20배까지 증가했다[그림19,20].

돈의 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확대

금융계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수출/입을 비롯한 실물거래 관련 달러화의 수요와 공급이 외환시장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자산을 사고 팔기 위한 돈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경상수지만으로 환율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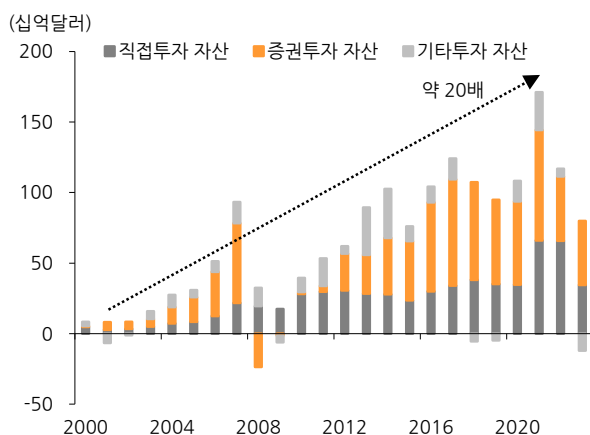
금융계정 영향이  
줄어들기는 어려움

앞으로 금융계정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인 외환시장 정책, 글로벌 금융거래 증가, 금융상품 다양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도 외환시장 규제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자본 이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지될 전망이다[그림25, 표5].

달러화 자산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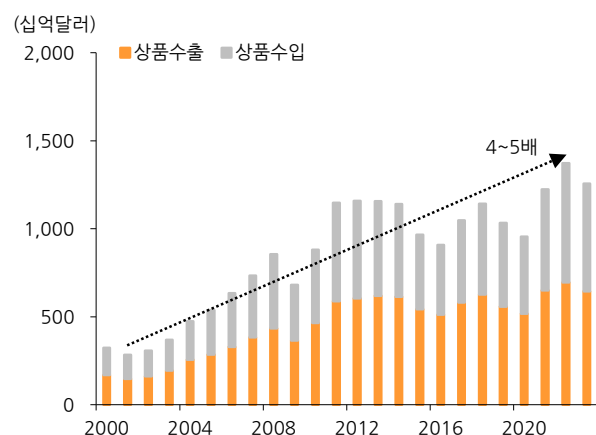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은 연평균 14.0% 늘었고, 특히 주식과 펀드 투자는 연평균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달러화 표시 금융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3.2%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달러화 수요가 공급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의미로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19] 2000년 이후 금융계정 내 자산은 약 15~20배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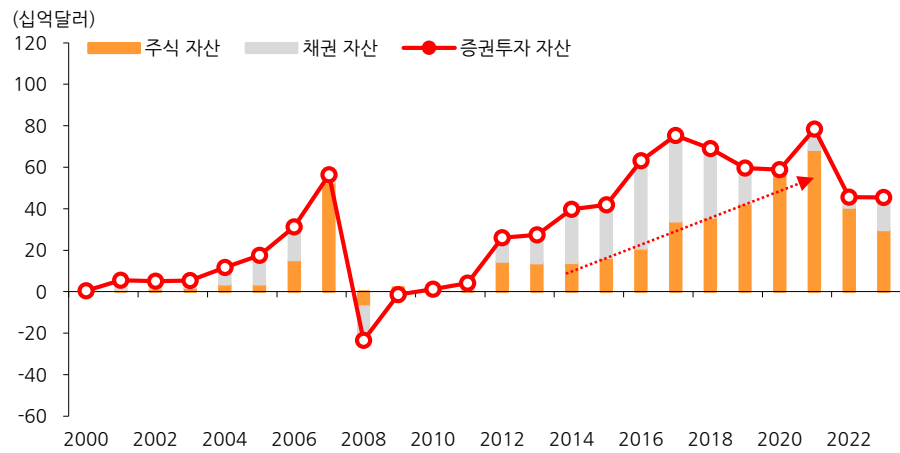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같은 기간 상품교역(실물거래)은 4~5배 정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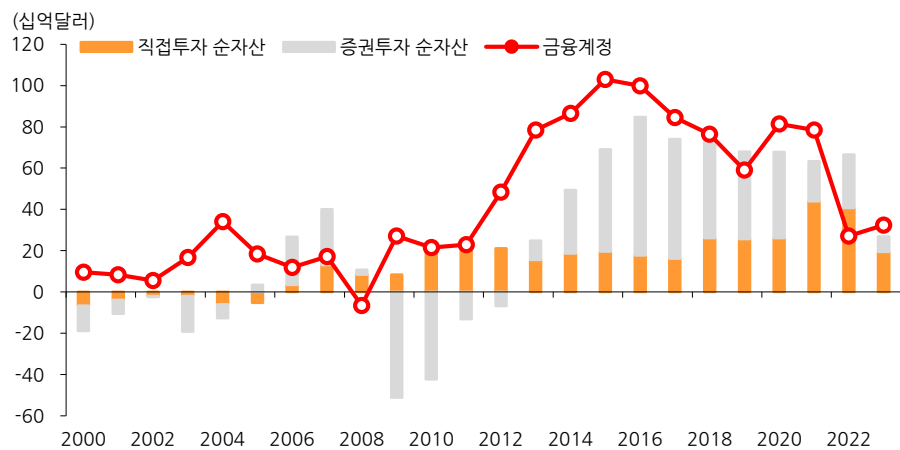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해외주식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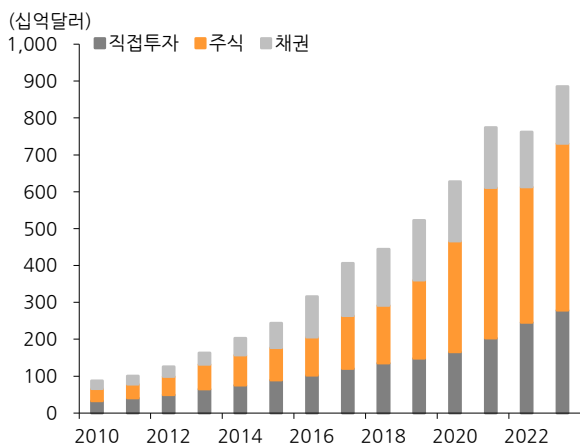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최근 금융계정 순자산 규모는 다소 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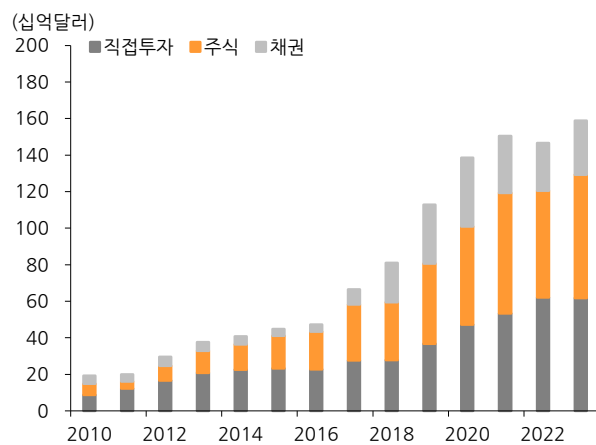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달러화 대외금융자산 주식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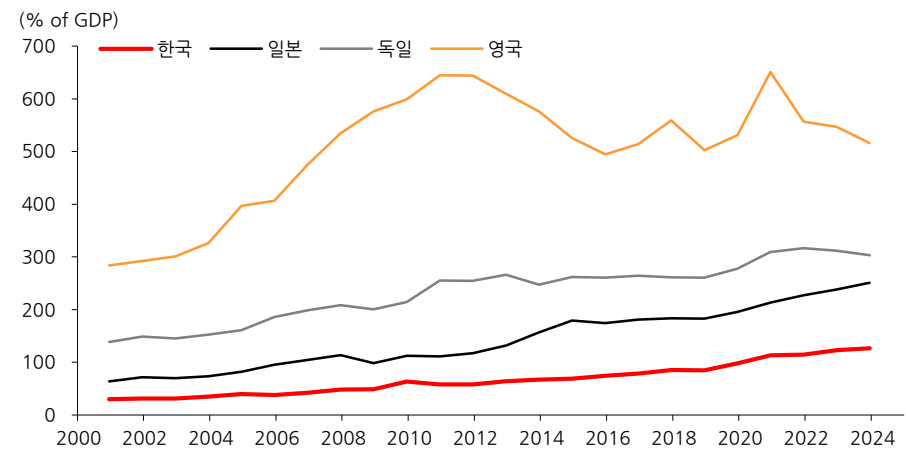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유로화 대외금융자산도 대체로 늘어나는 중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금융시장 발달 및 자본자유화와 더불어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 비율도 상승



자료: 한국은행, ESRI, Bank of Japan,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 Bundesbank, Office for N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5] 외환시장 및 해외투자 관련 정책

날짜	정책	세부내용
2021.01.20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등
2023.02.10	외환제도 개편 방향	시장 친화적 외환제도, 외환시장 위기 대응역량 강화
2023.06.21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글로벌화 등
2024.02.21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 허용, 주식통합계좌 이용자의 환전절차 간소화, 사전 원화환전 명시적 허용 등
2024.07.01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IV. 원/달러 환율 하단은 1,250 원

당분간 한-미 금리 역전이  
해소되기는 어려움

결국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려면 미국보다 성장이 강해지거나 금리가 높아져야 하는데, 단기간 내 한-미 금리 역전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2%p 높은데, 연준의 200bp 인하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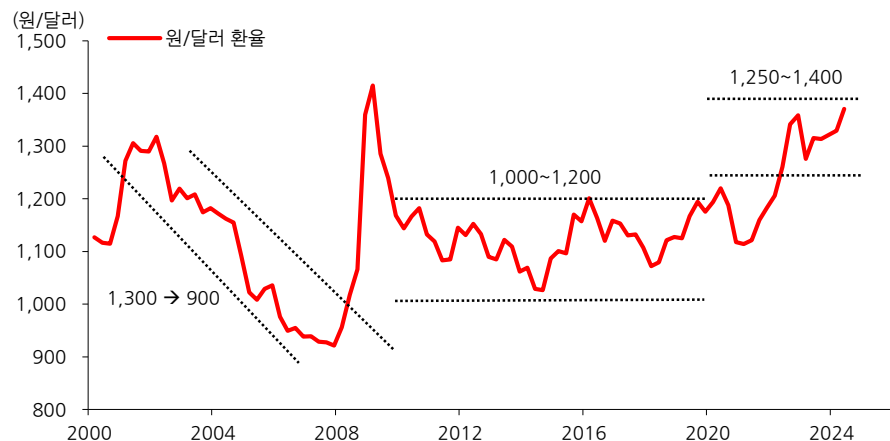
성장은 이르면  
연말에 원화 강세 요인 충족

당분간 금리 역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성장 격차를 봐야 한다. 국내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0.5%p 정도 높아지면 한-미 성장 격차 역전이 해소될 수 있다(4개 분기 이동 평균 기준).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하반기 한국 성장률은 2.2~2.3%, 미국 성장률은 1.8~1.9%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성장 측면의 원화 강세 기준은 충족될 수 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은 내년 초에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달러인덱스 100 정도면  
원/달러 환율 하단은  
1,250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커진 지난 2년 간 원/달러 환율은 8.7% 상승해 평균 1,33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가 2.5% 오른 것을 감안하면, 달러 강세를 제외한 원화 약세의 환율 기여도는 6.2%p로 추정할 수 있다. 원화 약세 영향이 전부 되돌려지는 수준을 원/달러 환율 하단으로 본다면, 그 수준은 약 1,250원이다. 달러인덱스가 100을 하회하면 원/달러 하단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달러 약세 폭이 가파를 가능성은 낮다.

[그림26] 달러인덱스가 100 내외 머문다면, 원/달러 환율 하단은 1,25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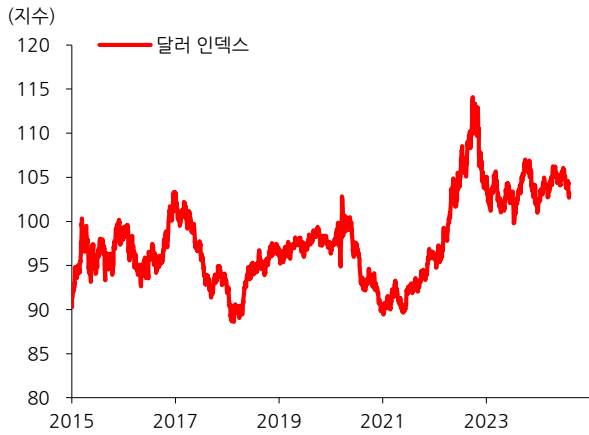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V. 금융 데이터 차트북

[그림27]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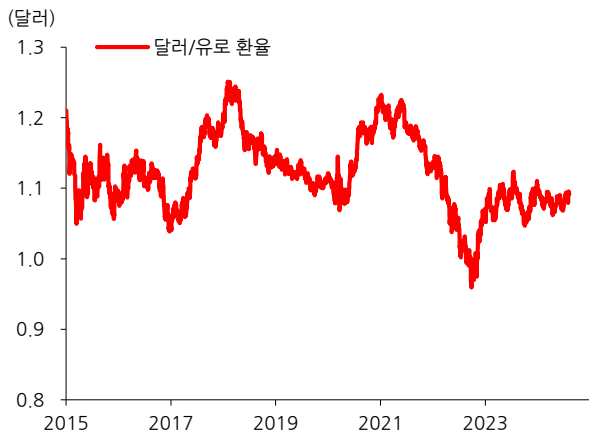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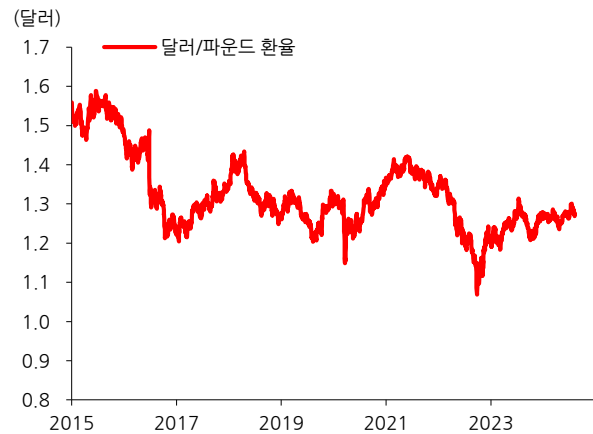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달러/유로 환율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달러/파운드 환율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루피/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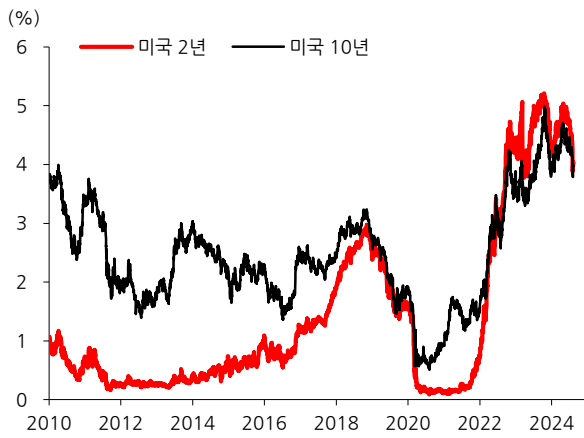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헤알/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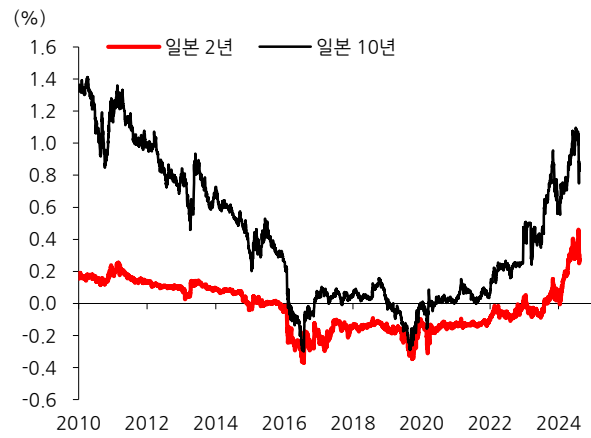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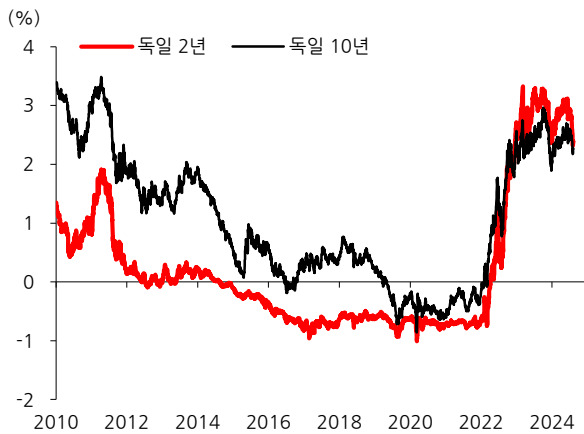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일본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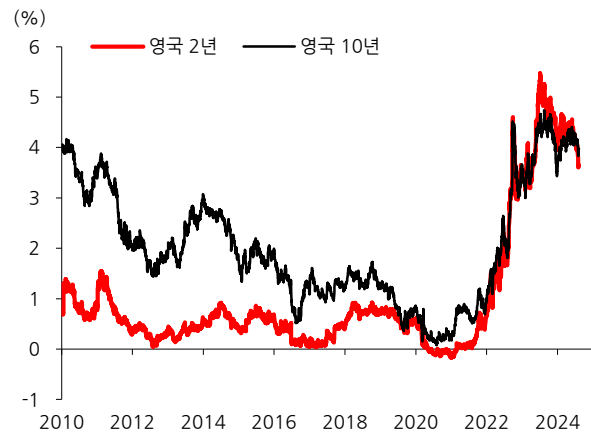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독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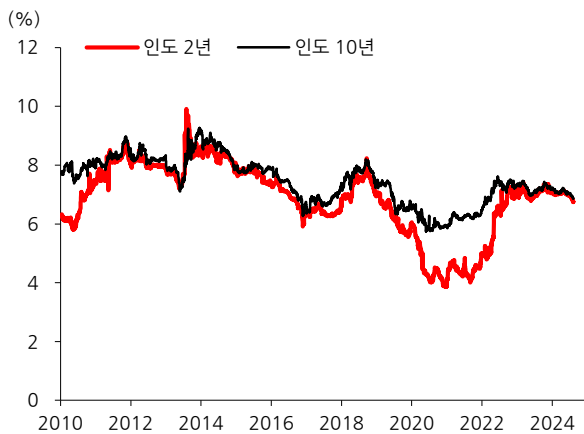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영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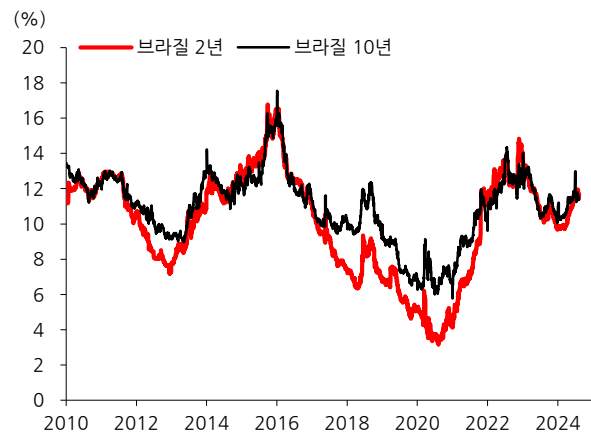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인도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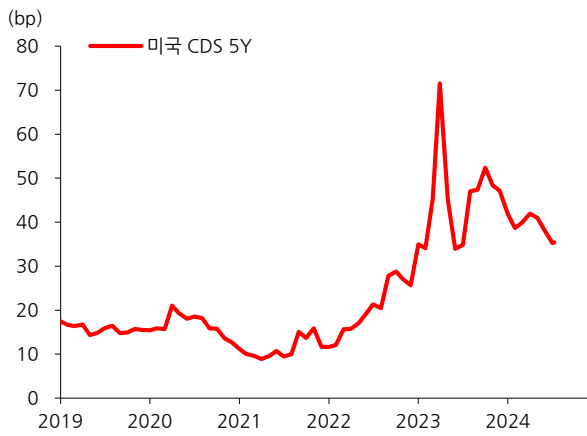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브라질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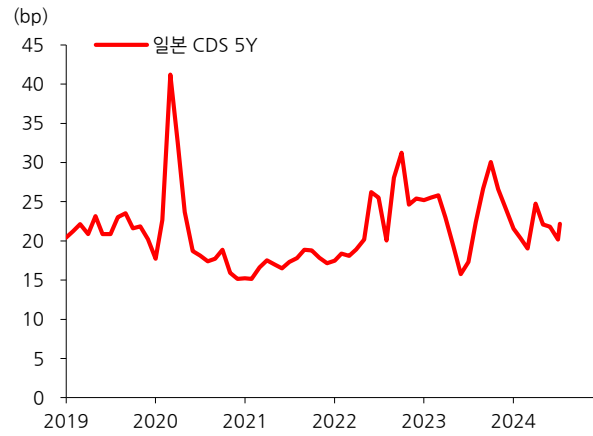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미국 CDS Premium(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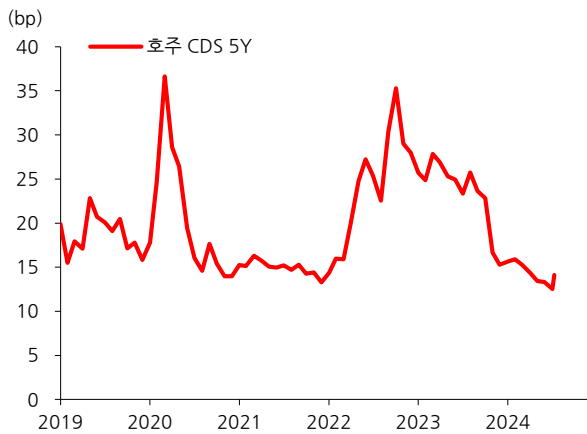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일본 CDS Premium(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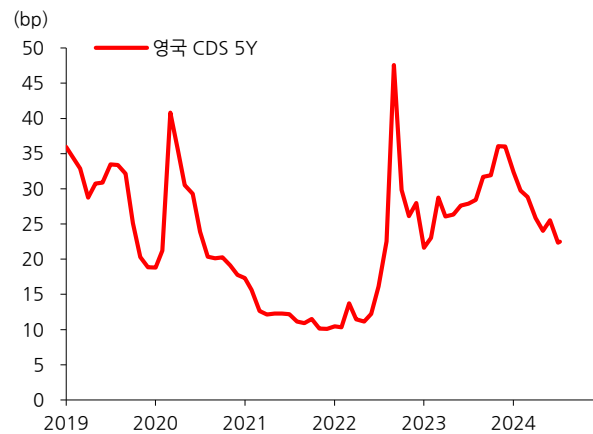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호주 CDS Premium(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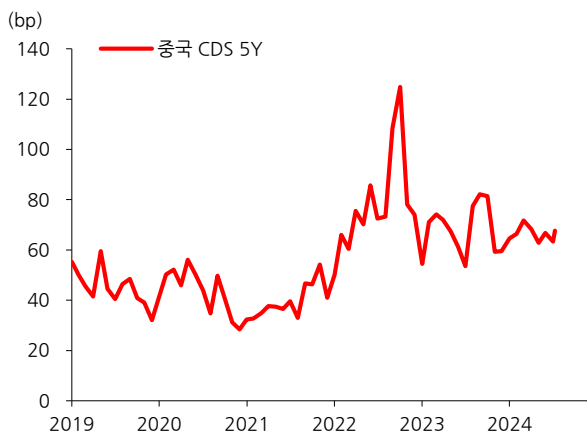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영국 CDS Premium(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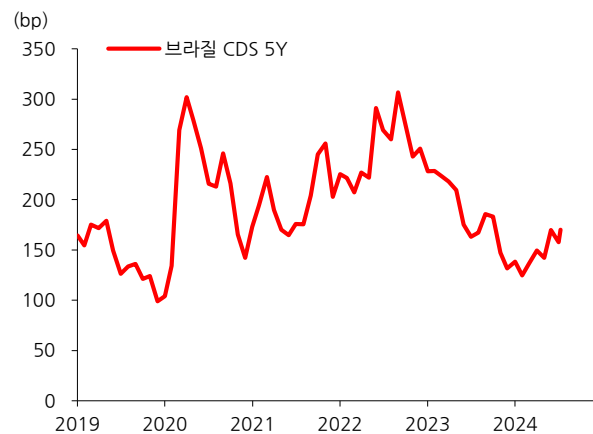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중국 CDS Premium(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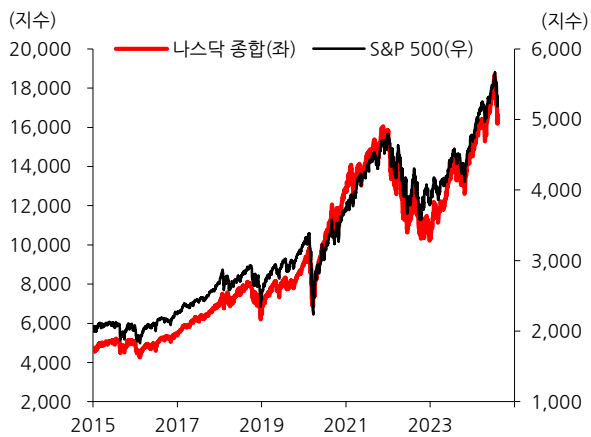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브라질 CDS Premium(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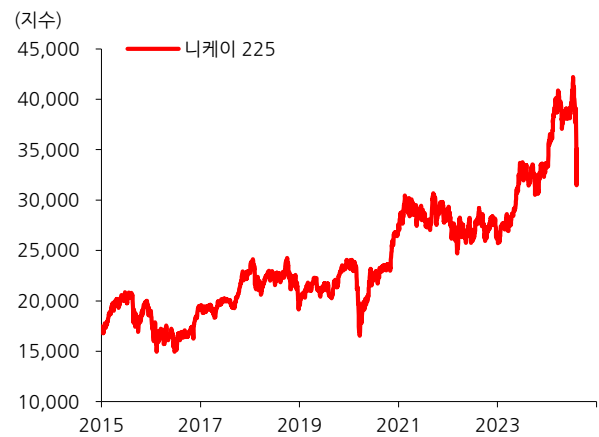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나스닥 종합 및 S&amp;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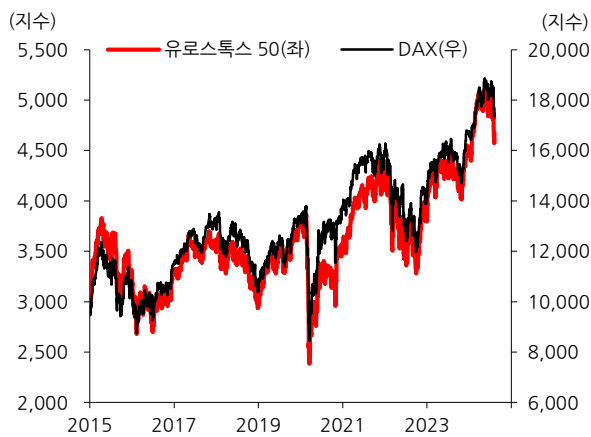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니케이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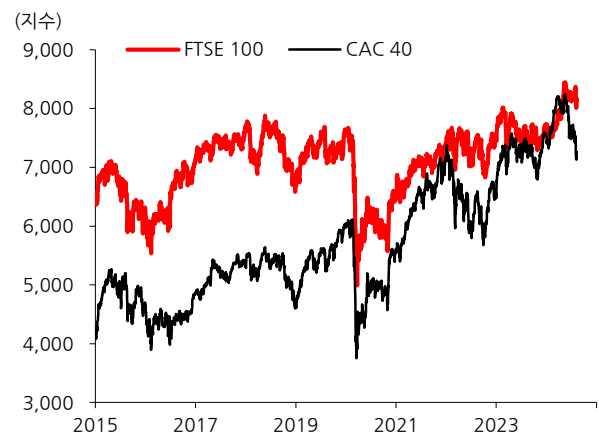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유로스톡스 50 및 D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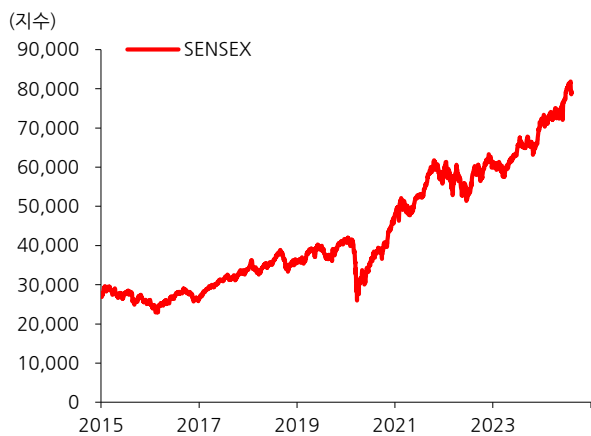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FTSE 100 및 CAC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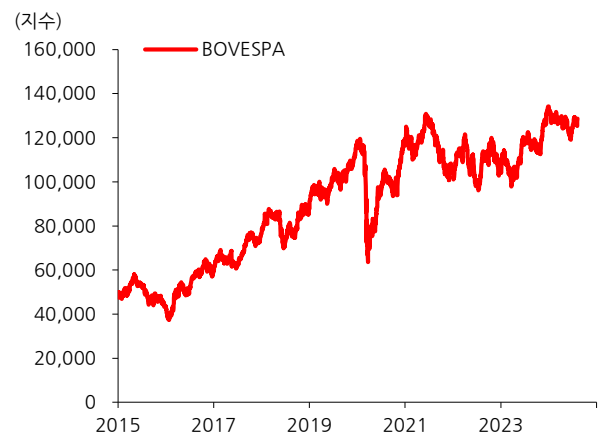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SENSEX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BOVESPA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re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